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아동의 사상교육에 관한 연구

권희주¹, 성윤아^{2*}

¹건국대학교 KU중국연구원 조교수, ²상명대학교 한일문화콘텐츠학과 교수

A Study on the Ideology Education of Children during the Asian Pacific War

Hee-Ju Kwon¹, Yun-A Sung^{2*}

¹Professor, KU China Institute, Konkuk University

²Professor, Division of Korean-Japanese Cultural Contents, Sangmyung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은 중일전쟁 이후, 아동의 사상교육에 이용된 '가미시바이'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어 다양한 미디어로 재생산된 <초콜릿과 병대>, 그리고 소년비행병을 주제로 한 <창공의 아이> 두 작품을 대상으로 전쟁이 아동의 일상에 스며드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초콜릿과 병대>는 전쟁이라는 비참한 실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기보다 아이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아이들의 초콜릿에 대한 선망을 부각시켜 초콜릿과 병대를 아이들의 꿈으로 등가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또 "아버지의 뒤를 잇겠다."는 아들의 발언은 아버지의 희생이 일회적 성격이 아닌 다른 희생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성격을 나타낸다. 전황이 격심해지자 1940년 일본은 '육군지원병령'을 제정한다. 이는 15세 이상 17세 미만의 교육생도 '소년비행병'으로 채용, 바로 현역대우를 받게 한 조치이다. 일본교육가미시바이협회에서 제작한 <창공의 아이>도 야스쿠니에 모셔졌기에 '나'의 아버지는 훌륭한, '나'도 성장해 '훌륭한 국민'이 된다는 미래를 제시하여 소년비행병으로의 참전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당시 소년들에게 비행기를 조종한다는 것은 일본의 훌륭한 국민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또 부여된 꿈이기도 했다.

주제어 : 사상교육, 가미시바이, 초콜릿과 병대, 창공의 아이, 소년비행병

Abstract In This paper examines how "Kamishibai" was used for ideological education of children during the war. "Kamishibai" was propos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s a methodology to "cultivate children's right concentricity. In particular, <Chocolate and Soldiers>, which was produced based on a true story, highlights the father's love sent to children by obtaining chocolate wrappers from comrades, and the children's envy for chocolate. Kazuo's interview, saying, "I will succeed my father," showed that he has a continuous personality that comes with another sacrifice. After the Sino-Japanese War, the war situation intensified, and in 1940, a new edict decided to enact the "Army Support Corps". This is a measure to select eligible youth applicants from 15 to 17 years of age, after training for 4 years, and then appoint them to aviation soldiers and sergeants. This is a legal maintenance that can be put into the battlefield at any time according to the trend of the war. Just as Kazuo, a real character in "Chocolate and Soldiers", also became a "boy flight soldier" after his father's death, flying airplanes to boys at the time was also a dream that Japan's great citizens should have. In the <Child of the Sky>, it is suggested that "the father enshrined in Yasukuni" is a great person, and that "I" will also grow and become a "good citizen". In particular, the two brothers in the work show the value of eternal sacrifices in Yasukuni as a typical model of the "great people".

Key Words : Ideological education, Kamishiabai, Chocolate and Soldiers, Child of the Sky, Boy flight soldier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KU Research Professor Program of Konkuk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Yun-A Sung(sungyuna@smu.ac.kr)

Received November 3, 2020

Accepted December 20, 2020

Revised November 30, 2020

Published December 28, 2020

1. 서론

1938년 중일전쟁 이후, '제국 일본'의 고노에(近衛)내각은 국민의 사상 및 경제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할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주장 속에 '국가총동원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다. 이는 국제수지의 확보와 함께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양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함이었다. 이때 미래의 병사가 될 아이들의 교육이 중시되면서 '소국민'이라는 용어가 탄생한다. '소국민'이란 "중일전쟁 이후 후방을 지원하는 아동"을 지칭하는 말이다[1].

성장하여 병사가 될 아이 '소국민'에게는 전쟁과 관련된 기초교육이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다. 당시 '제국 일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어린이의 문화 통제를 통한 '소국민문화'의 확립이었다. 기존에 '아동문화'로 칭하던 용어를 굳이 '소국민문화'로 바꾸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아동문화'는 교육계에서 먼저 사용되기 시작하여 1930년대 서서히 사회에 보급된 용어로, 기존의 개념으로는 전시기의 아동교육을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1940년대에 '소국민문화'로 변경하였던 것이다[2].

'제국 일본'은 '소국민' 육성과 '소국민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추구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학교라는 제도권에서 이루어진 '모형비행기'와 '글라이더' 교육, 그리고 '가미시바이'를 통한 아동의 사상교육이다.

가미시바이(紙芝居)는 "하나의 이야기를 주요 장면마다 그림으로 나타내어 그것을 순차적으로 제시하며 대사와 연기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미디어"이다[3]. 1930년대 초, 일본에서 가미시바이가 급속도로 확산된 이유는 1920년대 대중문화가 본격화하며 오락색채가 짙은 작품이 다수 등장하였는데, 특히 「황금박쥐(黄金バット)」의 출현은 어린이 최대의 오락이 되어 '가미시바이'에 대한 인기는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4]. 1929년 세계 공황이 일본에 큰 타격을 미치자 '가미시바이' 구연자들은 글자만 읽을 수 있다면 '가미시바이'를 공연할 수 있었기에 많은 실업자들이 업계에 뛰어들었고, 그로 인해 '가미시바이'는 더욱이 아이들을 상대로 대중화되어 나갔다.

본 논문에서는 대중적인 지지를 얻던 '가미시바이'가 전쟁 중 아동의 사상교육에 어떠한 전략으로 이용되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가미시바이' <초콜릿과 병대(チョコレートと兵隊)>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고 문부성에서 아이들의 '바른 동심을 육성'한다는 명목하에 대대적으로 공연되었다. 또 다양한 문화미디어로 변용되어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향유하게 된 작품으로, 이 전쟁미담은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었다. 또, <초콜

릿과 병대>의 실제 주인공이 '소년비행병'이 되었던 것처럼, 일본교육가미시바이협회에서 제작한 <창공의 아이(大空の子)>는 비행기 조종이라는 소년의 꿈을 제시하여 '소년비행병'으로의 참전을 독려한 작품이다. 이 작품들의 사례를 통해 '가미시바이' 이면에 감춰진 정치적 레토릭을 검토하고 '훌륭한 국민'의 의미가 무엇인지 탐구해 본다.

2. 선행 연구

아동의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가미시바이'의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유아교육의 측면에서 '가미시바이'의 효율적 제작과 효과적인 공연 방법에 대한 연구이다. 이는 현재까지도 아동교육에 이용되고 있는 '가미시바이'의 역할을 분석한 것이다.

둘째로 전쟁 중 공연되었던 국책(国策) '가미시바이' 관련 연구이다.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사쿠라모토 도미오(桜本富雄)와 곤노 도시히코(今野敏彦)의 『가미시바이와 전쟁(紙芝居と戦争)』은 선구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5]. 특히 '교육가미시바이'를 고찰하여 '가미시바이'를 통한 전쟁 교육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 '가미시바이'만을 오롯이 다룬 것은 아니지만 야구치 마사코(谷口雅子)[6]와 야마나카 히사시(山中恒)[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야구치 마사코는 '아동문화'의 용어출현부터 아동문화통제의 흐름 속에서 '가미시바이'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야마나카 히사시는 그의 저서 『소국민전쟁문화사(小国民戦争文化史)』에서 전쟁과 아동 관련 다양한 법률 및 사례를 연구하여 아동의 '소국민화'를 고찰하였다.

최근 일본 가나가와(神奈川大学)대학에서 『국책가미시바이로 보는 일본의 전쟁(国策紙芝居からみる日本の戦争)』을 출판하여 국책 가미시바이의 자료 데이터와 해제, 연구논문들을 수록, 출간하였고 그 중 일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가미시바이'를 소개, 분석하였다[8].

그러나 '가미시바이'의 연구는 사적(史的) 연구를 제외하고는 수용의 대상이었던 아동들의 담론, 구체적인 작품의 분석 등 아직도 연구가 미진하여 많은 연구 과제를 남기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작품인 <초콜릿과 병대>, <창공의 아이>를 통해 전사한 아버지와 남겨진 아이들의 관계, 그러한 아이들을 둘러싼 수용담론을 고찰하도록 한다. 이

러한 접근은 아리아마 데루오(有山輝雄)의 지적처럼 전시하의 “정치사회 동향을 위로부터의 권력적 계기만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오히려 “미디어, 민중의 능동성을 중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3. ‘가미시바이’, 그 정치적 레토릭-〈초콜릿과 병대〉의 사례

‘가미시바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30년대 길거리 공연 형태로 시작된 문화 미디어이다. 초기에는 흥행을 목적으로 한 오락물로 출발하였고, 그것이 대중의 흥미에 따른 스토리 중심의 〈황금박쥐〉와 같은 대중오락물로 더욱 발전하거나, 정치적 성격에 부합한 형태로 변모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초콜릿과 병대〉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1938년 9월 8일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 보도된 후, 당시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군마현(群馬県)에 살고 있는 사이토 다쓰지로(齋藤辰次郎)라는 한 가장이 전쟁에 차출된 어느 날, 집에 있던 장남 가즈오(和夫, 10살)와 장녀 지에코(千恵子, 6살)는 아버지가 보낸 편지를 받아 뜯어보니 그 안에는 초콜릿 포장지가 가득 들어있었다. Fig. 1처럼 사실 초콜릿 포장지에는 점수가 적혀있는데, 점수로 100점을 모으면 초콜릿 하나를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쿠폰과 같은 것이었다. 아버지는 전쟁 중에도 동료들에게 위문품으로 배급되는 초콜릿 포장지를 한 장 한 장 얻어 1300점이나 되는 포장지를 아이들에게 보내준 것이다. 아이들은 포장지를 초콜릿 본사에 보내게 되고, 초콜릿이 회사로부터 도착한 날 공교롭게도 아버지의 전사통지서를 받게 된다[10]. 이 사건이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은 실제 군마현 기류시(桐生市)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 점도 있겠지만 정치적 레토릭(rhetoric)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정치와 레토릭은 불가분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레토릭은 어떤 의미에서 진실과 정의를 강하게 어필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진실을 감추거나 왜곡을 통해 국민을 선동하기 때문에 양면적 성격이 내재되어 있다. 〈초콜릿과 병대〉 또한 전쟁이 존재하는 비참한 실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기보다는 전우들에게 초콜릿 포장지를 얻어 아이들에게 보내는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포장지를 초콜릿 회사에 보내는 아이들의 초콜릿에 대한 선망 등이 부각되고 있다. 〈초콜릿과 병대〉에 등장하는 장남 가즈오는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한다.



Fig. 1. Picture of the chocolate wrapper for “Chocolate and Soldiers”

전쟁터의 아버지가 그 교환권을 보내주셨을 때는 정말로 기뻐요. 그렇지만 교환품이 도착한 날, 아버지의 전사소식을 듣고 저는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사진을 걸고 보고했어요. 저도 크면 군인이 되어 아버지의 뒤를 잇겠습니다[11].”

아들 가즈오의 인터뷰는 전쟁의 참상을 은폐시키고 오히려 전쟁 차출의 두려움을 덮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 아버지의 희생이 단순히 일회적 성격이 아닌, 전쟁이 이어지는 한, 또 다른 희생이 따르는 연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아이들과 가정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나라의 사랑으로 바뀌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숭고한 영웅의 모습으로 치환되어 간다. 그 결과 작품 제목인 〈초콜릿과 병대〉에서처럼 ‘초콜릿’과 ‘병대’는 ‘사랑, 삶’과 ‘전쟁, 죽음’과 같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이질적인 단어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삶을 죽음으로 등가시키고 있으며, 초콜릿과 병대 모두 아이에게 미래의 꿈인 선망의 대상으로 변모되는 것이다.

문부성(文部省)은 1938년 11월 13일 국민정신작흥주간(國民精神作興週間)의 마지막 날 ‘국민가미시바이공연회(國民紙芝居公演會)’를 열고, 〈초콜릿과 병대〉, 〈후쿠짱부대(フクちゃん部隊)〉, 〈아기와 병대(赤ん坊と兵隊)〉, 〈국민 모두 전사(國民みな戦士)〉라는 4개의 작품을 공연하였다. 여기에서 문부성 사회교육국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한다.

다음 세대의 일본을 짊어질 소국민에게 강하고 친절하게 그리고 바른 동심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림의 정교함과 더불어 아이뿐만 아니라 가족도 풍요로운 동심으로 이끌리는 것이다[12].

공연된 4개의 작품은 모두 '전쟁지 미담, 충후보국(후방에서 나라를 위해 일함)' 관련 작품으로, 사회교육극장이 두 번 언급한 '동심'은 결국 '충후보국'을 뜻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충후보국'의 이념을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으로 확장시키겠다는 의도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가미시바이'라는 드라마를 관람한 관객들에게 감성적인 호소를 통해 현재의 전쟁을 받아들여 함과 동시에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편향된 당위성을 획득하게 한다.

'가미시바이' <초콜릿과 병대>를 통한 미담(美談)은 시간적으로 과거에 한정되지 않고, 현재형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군마현을 벗어나 일본 '내지' 혹은 '외지'에까지 확장된다. 이 미담은 또 다른 미담을 재생산하여 전쟁미담 확산이라는 전형을 보여준다. 이 사건을 접한 어느 어머니는 주인공 아들, 딸과 비슷한 또래의 남매를 키우면서 이 작품에 감격하여 아사히신문사로 주인공 아들 가즈오에게 소액우편환을 전해달라며 편지를 보내고,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영화를 보여줬다는 기사로 보도된다[13]. 전쟁 시기를 살아가는 일본 국민 개인마다 <초콜릿과 병대>라는 미담은 단순히 타인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이야기-직, 간접적 경험의 일체화-로 받아들여 함으로써 사이토 다쓰지로의 영웅적 죽음과 군인이 되고자 하는 아들의 각오야말로 '충후보국'이라는 시대적 정의이자 진실이라는 왜곡된 요구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초콜릿과 병대>는 미담의 미디어변용 현상도 보여준다. 레코드로 취입되거나 나니와부시(浪花節-샤미센의 반주에 맞춰 이야기를 노래로 전하는 일본의 전통 음악:논자주) 칸타타(交響曲)로 방송되는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는데 Fig. 2와 같은 영화화[14]는 정치적 레토릭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도호(東宝)에서 제작한 영화 <초콜릿과 병대>는 1938년 11월 오후 1시 구단시타군인회관(九段下軍人會館)에서 유료시사회를 개최하였다. 구단시타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가 있는 곳이다. 영화의 주인공 사이토 다쓰지로 상등병의 유족과 가까운 친지들을 모신 시사회는 이에 앞서 오전 10시 기류시 하마마츠초(浜松町) 제국좌(帝國座)에서 개최되었다[15]. 영화에서 "인간미 넘치는 아버지가 있기에 일본의 병사는 세계에서 전례 없는 군대"라고 외치는 모습[16]이 바로 아이들에게 소중한 초콜릿이라는 상품=아버지의 사랑=전쟁영웅의 관계를 그리고 있으며, 아이에게 있어 초콜릿이 소중한 것과 같이 전쟁에서의 희생은 선택이 아닌 필수불

가결이라는 공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은 전쟁을 아이들의 일상으로 끌어들이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Fig. 2. "Chocolate and Soldiers" Movie Poster

<초콜릿과 병대> 사건이 일어난지 5년 뒤인 1943년의 기사를 살펴보면 이 사건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형으로 계속 진행 중이다. 장남 가즈오는 1940년 3월, 유족자녀부대와 교류하여 구단시타에 참배하고 아버지의 영전에 맹세를 했다. 그리고 "가즈오군은 비행기에 열중하여, 모형비행기 만들기에 어린 마음을 두근거리고는 하였는데 이윽고 기류중학에 진학하고 대동아전쟁이 발발하자, '어머니, 저를 소년비행병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부탁하였고, 다카사키(高崎) 육군병원에서 수험 결과 훌륭히 합격", '소년비행병'의 대대적 모집이 이루어진 1943년 10월 오쓰(大津)육군비행학교에 입대하였다[17].

지금 그 남겨진 아이는 늙음하게 자라 육군소년비행병이 되어 "아버지의 사랑, 조국의 은혜"에 보답해야 할 하늘의 결전장에 용감하게 뛰어나가 하늘을 날려고 하며, 그 뒤에는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 생활과 싸우고 있는 "병대의 아내"의 고투도 담겨있다[18].

이는 당시의 정치적 목적, 이에 부합하는 교육이라는 미명아래 <초콜릿과 병대>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 아이들을 모범의 전형적 모델로 제

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군인의 아내라는 전형적인 어머니상을 제시하여 고된 삶도 전쟁의 일부이며 생존과 투쟁해나가는 전투의 모습으로 직결하여 그려내었다.

4. ‘가미시바이’와 소년항공병

〈초콜릿과 병대〉의 아들 가즈오는 아버지의 사후 5년 뒤 소년비행병이 되었다. 신문보도에 실린 한 장의 사진은 남겨진 가족의 삶을 단적으로 표상한다.



Fig. 3. Photographs of Kazuo and he’s mother

Fig.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남편의 죽음 이후 오롯이 자녀들을 양육해온 어머니는 자애로운 미소로 모형비행기를 바라보고 있다. 어머니의 모성애는 아버지께서 아이들에게 보내 준 초콜릿 포장지에 담긴 사랑과 함께 오버랩 되고 있으며, 어머니가 들고 있는 모형비행기는 ‘소년비행병’이 된 가즈오를 상징한다. 전투에 나간 아버지께서 하늘을 나는 아들로 이어지는 전쟁영웅서사의 연장선을 드러낸다.

소년비행병의 역사는 일찍이 시작되었다.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우수한 항공력을 선보였던 독일의 영향을 받아 일본에서는 육군보다 해군에서 먼저 항공조종사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해군이 항공기의 조종사로서 적당한 연령을 조사한 결과 “발육이 왕성한 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추이하는 16세에서 19세까지”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시기에 충분히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 처음으로 소년항공병을 채용하기로 한 것이다[19]. 더욱이 해군에서 소년항공병 채용에 좋은 성과를 올리자 육군항공대에서도 만15세 이상 19세까지의 중요득업생(重要得業生)과 조종생 2과로 나누어 소년병을 양성하기로 결정하고[20], 1933년에는 육군성의 성령(省令)을 개정하여 도

코로자와(所沢)비행학교를 졸업하면 비행부대에 배속하기로 결정하였다.

중일전쟁 이후 전황이 격심해지자 1940년 각의(閣議)에서 새로운 칙령 ‘육군지원병령’의 제정을 결정한다. 이는 종래 15세 이상 17세 미만의 청소년응모자 중 적격자를 선발하여 4년간 교육한 뒤 항공병과 하사관에 임명하였으나 이번 각의 결정으로 구마가야(熊谷)육군비행학교 조종생도, 육군항공정비학교기술생도 등을 ‘소년비행병’으로 채용, 바로 현역대우를 받게 한 것이다[21]. 이는 전황의 추세에 따라 언제든지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법적 준비를 해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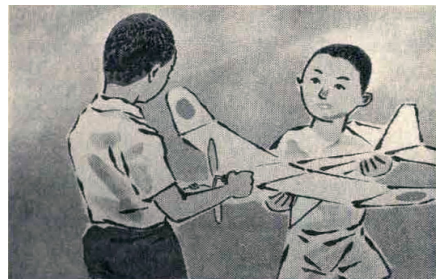


Fig. 4. The protagonist of “Child of Sky”

또 중일전쟁 이후 학교교육에서는 초등과에서 모형비행기 학습을, 중등학교에서 활공교육을 시행한 바와 같이 제도권에서 전신체제에 부합하는 소국민 육성에 교육의 목적을 두었다. 이는 ‘가미시바이’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 ‘가미시바이’를 통해 아동의 사상교육을 지원했던 일본교육시바이협회는 1941년 〈창공의 아이〉를 제작하였다.

〈창공의 아이〉 표지에는 “여러분 중에는 나라를 위해 전사하시어 호국의 신으로서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진 훌륭한 아버지를 갖고 계신 분이 있을 것”이며, “나도 크면 반드시 나라를 위해 도움이 되는 훌륭한 국민이 될 것이라 굳게 마음에 맹세했을 것”이라는 설명을 적시하고 있다[22]. 아버지는 비록 전사하였지만 ‘호국의 신’으로서 영생한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것이다. 또 아이들에게 Fig. 4와 같이 이 작품에 등장하는 두 형제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매일 분발하고 있느냐는 질문으로 공연을 시작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즉 작품의 서두는 3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버지의 전사는 야스쿠니 신사에 신으로 모셔지는 훌륭한 과업, 훌륭한 국민은 아버지와 같이 나라를 위해 야스쿠니에 가는 것, 작품 속 두 형제를 반드시 롤 모델로 삼을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목적이나 이익은 개인의 생명과 이익보다 절대적

으로 우선시되어야 하며, 야스쿠니신사에 모셔지는 것이 일본의 호국신으로 모셔지는 희생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전투기 조종사인 아버지가 가미가제(神風) 공격으로 죽음을 맞아, 류타(龍太)와 류헤이(龍平) 형제 또한 아버지처럼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를 꿈꾸고 있다. 그런데 형 류타는 비록 자신은 조종사가 되어 전쟁에 나가 죽더라도 동생인 류헤이만은 어머니를 모시며 살기를 바라고, 동생 류타가 조종사가 되는 꿈을 포기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어느 날 류헤이가 크게 낙심해있는 것을 본 동네 아이들은 류헤이를 향해 다음과 같이 조롱한다.

마을 아이들의 놀리는 소리: 이 겁쟁아, 이 겁쟁아
마을 아이 ①: 류헤이는 겁쟁이, 언젠 비행사가 된다고 뽐내지 않았어?
류헤이: ...
(중략)
마을 아이 ③: 아마 무서워졌을 거야...저거 봐, 역시 무섭지[23].

아이들의 조롱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행사가 되지 않으면 겁쟁이라는 등식은 결국 개인의 안위나 가정의 행복만을 바란다면 이는 마땅히 비판받아야 하며 배척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더구나 비행사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이 작품에서는 ‘균형이 잡힌 훌륭한 인물’이어야 되며, ‘몸이 튼튼한 것’을 물론이거니와 ‘어떤 곤란도 극복할 수 있는 인내와 용기’, ‘우수한 기술과 남들보다 뛰어난 두뇌’를 겸비하지 않으면 비행기를 조종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바꾸어 말해 조종사가 되지 않는다면-나라를 위해 희생하지 않는다면-그 이유는 아마도 몸은 허약하고, 인내와 용기도 없으며, 두뇌도 평범하기 그지없는 열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류타, 엄마는 말이야.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전사 소식을 받았을 때, 너희 두 사람을 훌륭한 비행사로 키워 창공에 바칠 것을 아버지와 굳게 약속했었어. ... 하지만 어머니. 우리 두 사람이 비행사가 되어... 둘 다 전사하는 일이 생긴다면... 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린다)

류타는 공연한 소릴 다하는구나. 엄마를 걱정했었구나. 엄마는 너희 두 사람이 훌륭하게 나라의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단다. 엄마로서는 그런 기쁜 일은 없을 게다[24].

위의 인용문은 Fig. 5와 같이 어머니가 아들 류타에게 하는 대사로, 아버지가 전쟁에서 전사한 것처럼 아들인 류타와 류헤이 또한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곧 국가의 충(忠)이자 부모의 효(孝)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남겨진 어머니를 지키고자하는 류타의 마음은 당연한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생각을 단호하게 정리해주는 역할은 어머니가 맡고 있다. 전쟁에서 아들을 잃지 않으려는 어머니가 아닌, 전쟁 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국가가 요구하는 어머니상을 확연히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Fig. 5. Mother's Conversation

‘소년비행병’은 정확히 말하면 징병에 의한 것이 아닌, 지원에 의해 채용되는 특징이 있다. 격심해지는 전쟁 속에서 항공병의 충원은 급선무였고, 이에 다양한 홍보방법으로 ‘소년비행병’ 지원을 독려했는데 바로 ‘가미시바이’가 이용되었다. 이처럼 ‘가미시바이’는 중일전쟁 발발을 기점으로 전쟁의 공포나 참혹함보다는 국가를 위한 고귀한 희생이 진정한 조국애이며, 나아가 그러한 희생적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정치적 레토릭 역할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는 물론 가족을 구성하는 일본 국민들에게 국가를 위한 순종적, 맹목적, 무조건적 희생을 강요하였던 것이다. 특히 어린이의 사상교육, 즉 아버지가 전쟁의 영웅이 되었다는 왜곡되고 편향된 미담은 그들이 성인이 되어감에 따라 그들 또한 아버지와 같이 나라를 위해 희생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이상과 같이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가미시바이’가 전쟁 중 아동의 사상교육에 어떠한 전략으로 이용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가미시바이’는 문부성에서 ‘아동의 바른 동심을 육성’

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제시된 미디어였다. 또, 이러한 동심은 바로 ‘충후보국’을 말하며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가족으로 확장해야 할 사상이기도 했다.

특히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초콜릿과 병대>는 전쟁이 존재하는 비참한 일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기보다는 전우들에게 초콜릿 포장지를 얻어 아이들에게 보내는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아이들의 초콜릿에 대한 선망 등이 부각되고 있다. 또 “아버지의 뒤를 잇겠다.”는 가즈오의 인터뷰는 전쟁이 이어지는 한, 또 다른 희생이 따르는 연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나라 사랑으로 등가시키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숭고한 영웅의 모습으로 치환시켜 간다.

이러한 희생은 아름다운 ‘전쟁미담’으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데, <초콜릿과 병대>의 미디어변용도 이에 한몫을 하였다. 레코드로 취입되거나 나니와부시 칸타타로 방송되었으며, 도호에서 영화로도 제작된 <초콜릿과 병대>는 등장인물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 아이들을 모범의 전형적 모델로 만드는 것과 동시에, 이들의 모습을 각 가정에 투사시킴으로써 진행되고 있는 전쟁을 일상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중일전쟁 이후 전황이 격심해지자 일본은 교육생을 ‘소년비행병’으로 채용하여 바로 현역 대우를 받게 하고 ‘가미시바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비행기 조종사라는 꿈을 제시하였다. <초콜릿과 병대>의 실제 인물인 가즈오도 아버지 사후 ‘소년비행병’이 된 것처럼 당시 소년들에게 비행기를 조종한다는 것은 일본의 훌륭한 국민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그리고 부여된 역할이기도 했다. <창공의 아이>는 ‘야스쿠니에 모셔진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며 ‘나’도 성장하여 ‘훌륭한 국민’이 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가미시바이’는 전쟁의 공포나 참혹함보다는 국가를 위한 고귀한 희생이야말로 진정한 가치이며, 나아가 이러한 희생적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정치적 레토릭 역할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미시바이’의 고찰을 통해 미디어의 프로파간다가 아이들에게 왜곡된 꿈을 심어주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내지’뿐만 아니라 ‘외지’인 식민지조선에서 이루어진 아동의 사상교육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향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REFERENCES

- [1] H. Yamanaka. (1974). *We are minority*, Tokyo : Henkyosha.
- [2] Y. Asaoka. (2006). Children’s culture in the 1940s-The substance of minority culture and children’s culture after the collapse of the 1940s, *Children’s culture*, 8, 29-49
- [3] K. Kata. (2004). *Kamishibai in Showa history*, Tokyo : Iwanamishyoten.
- [4] T. Suzuki. (2005). *Kamishibai as media*. Tokyo : Kyujansha
- [5] T. Sakuramoto & T. Konno. (1985). *Kamishibai and War : Children after home front*. Tokyo : Marujyusha
- [6] M. Yaguchi. (1986). Syouwajyunendainojidoubunkaundou, *Fukushimakyokoigakukiyou*, 36, 125-141
- [7] H. Yamanaka. (2013). *Cultural History of Minority War*. Tokyo : Keishoushobou.
- [8] T. Yasuda. (2018). *Japan’s War seen from National Kamishibai*. Tokyo: Benseisyupan.
- [9] T. Ariyama. (2001). Wartime regime and Nationalization. *Annual Report • Modern Japanese History*, 7, 1-36
- [10] “Chocolate and soldiers” A part of happy and sad fatherhood/“I will be a soldier”(1938.9.8.), *The Asahi Shimbun*, p.11
- [11] “Chocolate and soldiers” A part of happy and sad fatherhood/“I will be a soldier”(1938.9.8.), *The Asahi Shimbun*, p.11
- [12] Mental Development Week, Last Day Event, This is Japan’s largest Kamishibai, the popular “Fukuchan Corps” performance at Toshimaen on the 13th(1938.11.11.), *The Asahi Shinbun*, p.3
- [13] Enclosed 2 yen with the inspiring intimacy of the movie, the main character, with “Chocolate and Soldiers”(1938.12.22). *The Asahi Shimbun*, p.3.
- [14] Hobby/Friendship to the dead comrades reproduced on the silver screen, a good story about “Chocolate and Soldiers”(1938.11.11.) *The Asahi Shimbun*, p.3
- [15] Movie consolation to family “Chocolate and Soldiers” preview(1938.12.9.). *The Asahi Shimbun*, p.3
- [16] T. Yasuda. (2018). *Japan’s War seen from National Kamishibai*. Tokyo: Benseisyupan, p.25.
- [17] Chocolate and Soldiers, sequel/Now a fine chick eagle, smiling man “Kudan’s father”(1943.11.14.). *The Asahi Shimbun*, p.3.
- [18] Chocolate and Soldiers, sequel/Now a fine chick eagle, smiling man “Kudan’s father”(1943.11.14.). *The Asahi Shimbun*, p.3.
- [19] The Navy hires boy aviation soldiers from 16 to 19 years old ahead of the great powers.(1926.6.22.). *The chosun Shinmun*, p.1.
- [20] Decision to implement child soldier training in the Army Aviation Corps from next year.(1930.8.23.).

Joongei Ilbo, p.2.

- [21] Active boy flight soldier system during the education period, decided by the Cabinet meeting(1940.4.20.) *The Asahi Shimbun*, p.2.
- [22] T. Sakuramoto & T. Konno. (1985). *Kamishibai and War : Children after home front*. Tokyo : Marujyusha, p.113
- [23] T. Sakuramoto & T. Konno(1985), *Kamishibai and War : Children after home front*. Tokyo : Marujyusha, p.119
- [24] T. Sakuramoto & T. Konno. (1985). *Kamishibai and War : Children after home front*. Tokyo : Marujyusha, p.121.

권 희 주(Hee-ju Kwon)

[정회원]



- 2005년 8월 : 고려대 일어일문학과(문학박사)
- 2019년 9월 ~ 현재 : 건국대학교 KU 중국연구원 조교수
- 관심분야 : 문화콘텐츠, 일본문화, 일본의 전쟁민속
- E-Mail : shiawase@konkuk.ac.kr

성 윤 아(Yun-A Sung)

[정회원]



- 2003년 3월 : 도쿄대 일본문화연구(문학석사)
- 2008년 3월 : 도쿄대 일본문화연구(문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상명대학교 한일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문화콘텐츠, 융합교육, 언어
- E-Mail : sungyuna@smu.ac.kr